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15년만에 첫 재판 DNA 제시해도 “기억 안 난다”

30대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정황증거·수사과정에 재판부서 일부 의문 제기도

2001년 2월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5년만에 열렸다. 하지만 법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1일 법정동 302호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2001년 2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인 여고생 A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 드들강으로 데려가 1차례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란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김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 내내 답답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질문에 또박또박하게 답변해 재판관을 침착하게 했다.

김씨는 “그렇지 않다”, “기억하지 않는다”, “추측한다”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기 애매하다. DNA가 나왔다고 해 성관계를 했을까 추측한다”며 “기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동생과 강진으로 여행을 갔느냐’는 질문에도 “기억하지 않는다. 사진보고 추측한다. 동생이 아니고 조카”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감된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김씨가 여자친구·조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냈다. 검찰은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김씨가 일부러 찍어 보낸 것”이라며 김씨 범행의 정황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와 수사 과정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검찰 측에 증인·증거 채택과 관련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여러 명 불러야 하는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턴채팅으로 만나 승용차에 함께 탔다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묻고는 “공소 사실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수사를 통해 제출한 증거 일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검찰 증인 심문, 26일 피고인 증인 심문, 28일 증거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 금품을 노리고 전당포 업자 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송고한 시신기증에 고개 숙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직원들이 3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명학홀에서 열린 ‘의학교육 시신기증인 합동추모식’에서 고인의 위패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전남대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54명을 화순 전남대 의생명과학 융합센터 내 추모관에 봉안, 송고한 뜻을 기릴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 가정 파탄내놓고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나” 분노

피해자 가족 표정 경찰 초기수사 부실 원망도

“한 가정을 파탄내놓고 어쩔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여동생 박모(31)씨는 31일 첫 공판을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최모(59)씨는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울먹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이 사

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강간 살인) 전혀 그렇지 않다. 성관계를 했는지도 기억하지 않는다. DNA가 나왔으니 추측만 한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을 지켜본 어머니 최씨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저렇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어머니와 함께 범정을 찾은 여동생 박씨는 “피고의 얼굴만 쳐다봤는데 너무 당당한 표정에 어이가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씨는 “김씨가 재판부에서 증거 목록

을 기각할 때 계속 고개를 끄덕이던데, 너무 화가 났다”면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피고인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위낙 오래된 사건이라 증거가 얼마 남아있지 않아 법률적으로만 판단받으려고 거부한 것 같다”고 한숨 지었다.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언니의 한을 이면에는 꼭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개인정보법 위반’ 성문옥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장 입건

초대 광주시 감사위원장 성문옥(56)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 감사위가 지난 3월 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조직 전환 투표 과정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입비 소득공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성씨를 소환 조사한 이후 법에서 금지한 ‘민감정보 처리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6일 광주시 감사위원장인 성씨를 불러 조사한 뒤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가담한 감사실 직원 등 시청 관계자 추가 입건도 검찰과 협의 중이다.

성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 감사위를 통해 광주시청 각 실과에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성명, 소속, 노조 가입비 소득공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200여명의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

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처리한 노조 가입비 소득공제 내역을 요구하고 이를 수집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 각종 특별법을 통해서 시 감사위원에게 공무원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참고인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제시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기각 확립 차원에서 추진된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잇단 진료불만 범죄 ‘위험수위’ 광주서 치과 의사 찢른 40대 검거 지난달 대학병원선 흉기 난동도

병원에서 진료중이던 30대 여성 치과 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흉기 피습을 당했다.

지난해 11월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전공의와 환자들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사를 상대로 한 진료불만 범죄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3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자신이 다니던 치과병원에서 여의사를 흉기로 찢른 혐의(살인미수)로 혐의(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설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치과에서 치과 의사 A(아·37)씨의 복부 등을 2~3차례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설씨는 A씨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사이 옷 속에 숨겨 놓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씨가 범행 직전 이 병원 간호사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나왔다가 한 달 전 미리 구입해 둔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간호사 등과 대치하고 있던 설씨를 붙잡았다.

설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치과병원 환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소에도 치료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치아를 뽑는 치료를 받은 뒤 항의의 거세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는 경찰에서 “죽이려고 했다”면서 “치아 브릿지(보철 치료의 일종)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치아를 뽑아 통증을 있다고 의사에게 항의했다니 ‘알아서 하라’고 대꾸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설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한 점 등으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광주교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레지던트(38)와 환자(74)를 다치게 했다. 무좀 치료를 받아온 김씨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레지던트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23일에는 경북 고령에서 80대 환자가 의사(37)를 흉기로 찢러 중태에 빠뜨리는 등 의사를 상대로 한 진료불만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DJ센터 직원들 금품·향응 접대 의혹...광주경찰 내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들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개부터 공공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부 직원들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전서와 대관 업무를 담당

하는 컨벤션센터 일부 직원들이 접대를 대가로 업무상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체가 계약과정에서 탈락하자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의혹에 대해 두루 살피고 있다”며 “아직은 내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정서 정보과 직원이 면장을 찾아가 면사무소 인사와 관련한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갑질을 해 해임된 사례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

○3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함평경찰서 정보과 A 경사가 지난 30일 오후 5시에 관내 면사무소를 찾아가 B 면장에게 발언한 사안에 대해 감찰에 착수.

○B 면장은 “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까지 개입해 따지는 A 경사의 행동은 행정사찰과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경찰은 “A 경사의 행위가 정 보활동에 들어가는지와 부적절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가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금융매장추천 감평가 15억 ▶ 최저가 15억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키아미운지 상가 483㎡ 카페, 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평가 8억7천7백 ▶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평가 11억8천7백 ▶ 최저가 8억3천1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안천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평가 57억6천7백 ▶ 최저가 20억6천7백(36%)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평가 21억3천2백 ▶ 최저가 11억9천4백(56%)
- ★ [토지] 광주 광산구 월전동 대지330㎡ 평동산단 원룸부지 교통편리 코너위치 감평가 1억6천4백 ▶ 최저가 1억6천4백 투자추천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민수리 3층상가 대지 691㎡ 건물 1008㎡ 감평가 8억8천3백 ▶ 최저가 3억1천6백 (36%) 투자추천
- ★ [공장]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석곡농공단지 대지 4,753㎡ 건물 2,619㎡ 감평가 7억8천3백 ▶ 최저가 2억8천 (36%)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용두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원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옹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D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발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양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 (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곡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양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킵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역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사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